

19. 신학 다시하기: 유대 지도자와의 분쟁 II (12:18-44)

A. 지배신학의 도전

- 형식: 질의응답 (ἐπιρωτώω in vv. 18, 28)
- Honor/Shame Confront=> (지배세력이 예수에게) 네가 (네까짓게) 성경을 아느냐?

1. 부활에 관하여 (18-27 절)=> 정체성 문제

- οὐ διὰ τοῦτο πλανᾶσθε μὴ εἰδότες τὰς γραφὰς μηδὲ τὴν δύναμιν τοῦ θεοῦ;
 AWP: Is not because of this you are misled, not knowing the scriptures or the power of God? (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(모르는 상태에서), 이것 때문에 오해함이 아니냐?
 NRSV: "Is not this the reason you are wrong, that you know neither the scriptures nor the power of God?
 NIV: "Are you not in error because you do not know the Scriptures or the power of God? (모든 한글번역)
- 여기서 “이것 (τοῦτο)”은? Cf. 막 6:14; 11:24
 - 앞의 말, 생각=> 누구의 아내? 육체적 부활
 -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=> 하나님의 능력 vs. 인간의 능력 (누구의 아내?)
- “아브라함의 하나님, 이삭의 하나님, 야곱의 하나님”(출 3:6)=> 하나님 이력서
 - 아브라함, 이삭, 야곱 (그리고 요셉)은 이미 죽었다 (출 1:5) =>그럼 죽은 자의 하나님???
 - 어떤 의미에서 “산 자들의 하나님”인가? (막 12:24)=> 정체성 문제=> 우리들 이력서
- 죽은 자들—그들이 살아난다—에 대하여=> 막 6:14; 9:9-10; 12:25-27 (공통점은?).
 - 유대 사람 (“아브라함, 이삭, 야곱의 후손”)이라 하여 자동적으로 “산 자들”이 아니요, 하나님의 믿음/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께 속한 자 (정체성)=> 역시 신학 다시하기
 - Q (마 8:22; 눅 9:60): ἄφερ τοὺς νεκροὺς θάψαι τοὺς ἑαυτῶν νεκρούς. “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좃으라/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”

2. 토라/성서의 가르침 (28-34 절)=> 행동윤리 (경천애인)

십계명 다시 이해하기 (막 10:17-22; 12:28-34) => “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?”(막 10:17)

- 막 10:19 “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, 간음하지 말라, 도적질하지 말라, 거짓 증거하지 말라, 속여 취하지 말라,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”
 - 10 계명 + “속여 취하지 말라” (막 10:19// cf. 마 19:18-19; 눅 18:20) => 네 가진 것을 팔아 ...
 - 10 계명=> 신명기 6:4-5=> 레위기 19:18
- 온전함(ὅλος ὅλη ὅλον=>all, whole, complete)의 의미=> 결함이 없는
- 12: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(ὀλοκαυτωμάτων)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=>
 - 또 온(전한) 마음과 온(전한) 지혜와 온(전한)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온(전한)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나으니이다 (레 1:3, 10; 9:2-3; 23:12, 18; 민수기 28-29 장).
 - 번제물(ὀλοκαυτωμάτων)=> whole burnt offering. Whole (全)=> entire; without blemish (민 28:9-10).
 - 34 절. “지혜있는 대답” => 외형적인 (정결법상의) 온전함이 아닌, 마음/뜻이 갈리지 않음 (entire, without blemish)=> 정치/종교/경제/사회/문화... 일상생활의 온전함. 곧 하나님 나라/복음의 실천.

B. 예수의 도전=> 신학 다시하기

- 형식: 성전에서 가르침 (διδάσκω, v. 35; διδαχή, v. 38)

1. 그리스도/메시아 이해: “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?”

	마가복음	시편 110 편 (LXX 109)
저자	다윗	Unknown: דָּוִד (다윗에게...)
주	주 (κύριος)	여호와 (יהוה) => 주 (κύριος)
내주	주 (κύριος)=>그리스도(χριστός)	주 (יהוה) => 주 (κύριος)=> 다윗(시 2:2)

- 전통적 이해
 - 시편 2편, 110 편은 모두 제왕시(royal Psalms). 고로 서기관들의 해석이 전통적인 이해.
 - 시 2:2 “여호와와 그 기름부음을 받은 자” (יהוה וְיָחִידֵינוּ יְהוֹשִׁיעַ =>κατὰ τοῦ κυρίου καὶ κατὰ τοῦ χριστοῦ αὐτοῦ) =>그의 메시아/그의 그리스도 (다윗 왕)
 - (마가복음에 따른) 예수의 이해=> 다윗 신학에 대한 정면 도전. 혹은 그 신학을 달리 해석=> 예수가 다윗의 자손=>왕이라는 말이 아니라, 기존세력에 대항하는 상징적 표현(cf. 10:46-52; 11:1-10). “네가 그리스도냐?” 그렇다. (제사장: 전통적 이해에서, 고로 신성모독죄 적용; 예수: 다른 그리스도=>다른 신학)
 - Q. (독자들의) 잘못된 이해
 - 막 10:46-52 다윗의 자손 예수여=> lip-service; 그러나 예수 앞에서는 “랍비”, 그리고 눈을 뜨고는 (가라고 하는데도 스스로) 예수를 좇음
 - 막 11:1-10 vs. 눅 9:9=> 시 118:25 (예수의 예루살렘 입성=>군중들의 소리// 예수의 갈릴리 회당=>귀신들의 소리). Cf. 눅 10:40 (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, 돌들이 소리지르리라) => 같은 이야기/경험을 놓고, 마가복음은 반대표(or no positive comment), 누가복음은 찬성표.
2. 어떤 그리스도? => (하느님의) 기름부음을 받은 자=> 지도자
- 다윗 (=> 혈연, 지연, 학연) vs. 군중의 지도자 (=> “백성들이 즐겁게 들더라”)
 - 현금=> 종교적 생활 (취미생활 vs. All-In)
 1. 서기관(지배계급 상징)=> “그들에게 넘치는 것 중에서 일부” (ἐκ τοῦ περισσεύοντος αὐτοῖς)를 바침.
 - 이들의 재산/부의 출처. “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...” (막 12:40).
 - 과부에게 남은 것이 없다 (=> 두 렙돈). 렙돈(당시 가장 적은 화폐 단위) = 1/128 데나리온
 2. 이것 마저 바친다면? (현금인가, 약탈인가?)

REFLECTIONS:

1. 과부가 전재산을 바친 것을 칭찬한 것일까? 어떤 의미에서? 아니면 그런 제도를 질타한 걸까?
2. “노무현으로 상징되는 가치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게 아니고,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것이었죠” (23 분 30 초) 여기서 말하는 “가치”는?